

## 다함께 화재 진압해요.

아이디어부문(중등부)

우수상 오민지

화재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작은 실수로도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일어난 작은 불씨는 큰 불이 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명 피해와 상처, 후유증을 남겨줍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.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현장을 초기에 진압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에서는 더욱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중점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.

학교는 일 년에 몇 번씩 화재예방교육을 하고 화재시 대처방안을 안내장으로 배부해 줍니다. 하지만 막상 화재가 일어나면 학생들은 우왕좌왕해서 작은 불조차 진압을 하지 못하여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선생님이나 몇 명의 학생들이 불을 끄려고 해도 근처에 소화기가 없거나 소화기의 핀을 뽑아 손잡이를 움켜쥐어도 이미 학생들의 장난으로 사용한 소화기여서 발사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, 주변에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도구나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. 이때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커튼을 다 뜯어 댕더라도 불에 타기만 하고 불길만 거세지게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 커튼에 주로 쓰이는 소재는 두꺼운 천의 드레이프, 투명한 케이스먼트 클로스, 린넨 등인데, 이런 소재는 건조하여 불에 잘 타고 얇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열에 강하여 잘 타지도 녹지도 않는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커튼입니다.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커튼을 학교에 설치하여 작은 화재시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뜯어 화재현장을 덮는다면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 큰 화재 발생시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커튼을 뜯어 몸에 두른다면 불의 피해를 적게 받으면서 대피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무엇보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처방안을 실행하고 소방관이 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위험이 있는데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커튼이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만약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커튼이 전국 학교에 보급이 된다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, 커튼을 이용하여 화재시 대처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없어도 학생들이 바로 진압을 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